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11월

발행일 : 2024년 10월 30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AT, 아세안최대시장베트남K-푸드 페어 성공적 개최 17
- ✓ <기업탐방>힐링메디컬코리아 18
- ✓ <법률>베트남에서의 유언.....전현우 변호사 20
-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8탄.....엄진용 회계사 22
- ✓ <통관>베트남 관세총국의 EPE 관련 문의 공문 요약.....정영균 관세사 24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광응아이성> 26
- ✓ <이달의보고서> 2024 베트남 김부각 보고서..... 34
베트남청소년의한류선호도및소비동향에대한한류영향조사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5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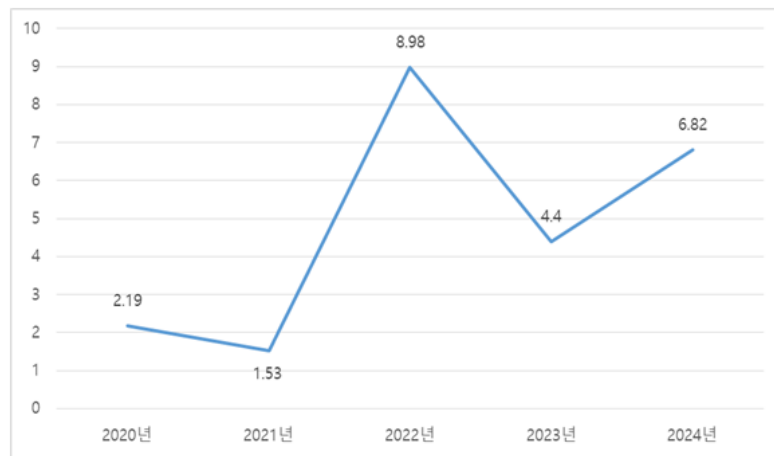
2024년 1~3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 2024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7%대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태풍 야기 여파로 3분기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하락

베트남, 2024년 1~3분기 경제성장률 6.8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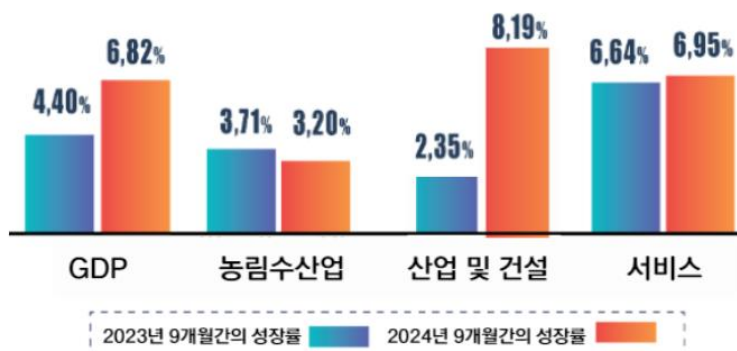
2024년 베트남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최근 가장 강력했던 슈퍼 태풍 야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했다. 이는 올해 1분기(5.66%), 2분기(6.93%) 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공제조업은 3분기 기준 11.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6년간 3분기 성장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2024년 1~3분기 합계 경제성장률 추이>



베트남 통계총국(GSO)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GDP는 6.82%로, 2022년을 제외하면 2020~2023년 동기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 및 건설 부문은 8.19% 증가하며 경제 성장에 46.22% 기여했으며, 서비스 부문은 6.95% 증가하며 GDP의 48.41%를 차지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인해 농림수산업 부문은 전년 동기 보다 낮은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5.3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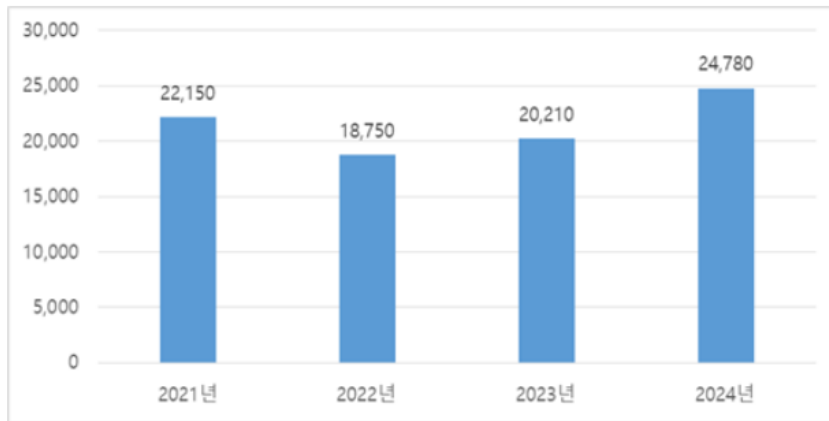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1~3분기 항목별 GDP 성장률 비교>



2024년 1~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및 3분기 지출 항목별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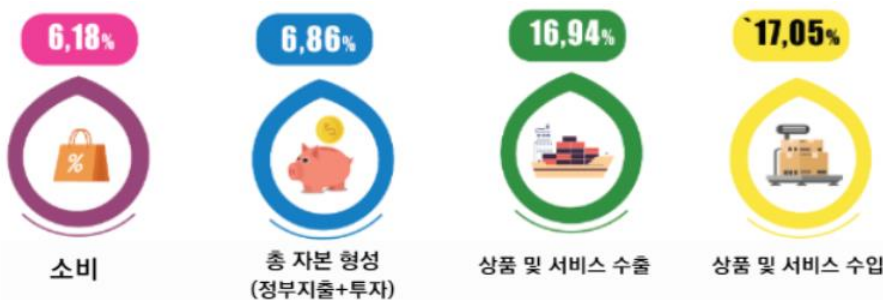
베트남의 2024년 1~3분기까지의 신규 등록 자본금, 조정 등록 자본금,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기여 및 주식 구매 가치를 포함한 총 외국인 투자 자본(FDI)는 투자릿수의 증가율로 호조를 보였다.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총 외국인 투자 자본은 247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이중 신규 프로젝트는 2,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으나 등록 자본은 13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1.3% 증가했다.

<2021~2024년 연도별 1~3분기 합계 기준 베트남 FDI 유치액 동향>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공·제조업 부문에 90억 2,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2024년 1~3분기 합계 기준 신규 등록 자본의 66.6%를 차지한다. 이외 부동산업 24억 4,000만 달러, 기타 21억 3,000만 달러 순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47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2024년 1~3분기 합계 기준 신규 등록 자본의 35.2%를 차지했으며, 대 베트남 투자 84개국중 최대 투자국에 올랐다. 2위는 중국으로 1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홍콩과 한국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2024년 1~3분기 지출 항목별 GDP 성장률>



2024년 1~3분기 기준, 항목별로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17.05%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 수출도 16.94%를 기록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베트남 주요 교역국들의 수요 급증이 상반기 베트남의 수출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3분기 베트남의 수출입 증가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의 베트남의 총교역액은 5,78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2024년 1~3분기 총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2,996억

3,000만 달러, 총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2,78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7억 9,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1~3분기 상품 수출 및 수입>



2024년 1~3분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미국이며 수출액은 894억 달러로 추산된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입 시장이며 수입액은 1,050억에 달한다. 베트남의 대한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1% 상승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3분기 산업생산 증가

2024년 1~3분기에는 제조 및 가공 산업이 호조를 보였으며, 베트남의 전체 공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8.34% 증가하였다. 그중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9.76% 상승하였다.

<2024년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공업 부문별 창출된 부가가치 성장률>



산업생산 주요 제품 중에는 철근, 각철이 26.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외 휘발유와 압연강도 각각 20.3%와 16.8%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산업 원재료 부문의 산업생산 성장률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24년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제품의 산업생산 성장률>



시사점

2024년 3분기 베트남 경제는 수출입의 증가, 정부의 물가지수 안정,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여러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그러나 S&P글로벌(S&P Global)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베트남의 제조업 PMI는 47.3으로 전월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베트남 제조업 PMI의 하락은 30년만의 초강력 태풍인 야기로 인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폭우와 홍수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공급망과 생산라인이 중단되며 제조업에 타격이 발생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태풍 야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2억 9,23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태풍 야기의 영향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호치민시 통계국이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2% 이상이 향후 생산 및 사업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답했으며, S&P글로벌의 PMI 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빠른 수요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내년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트남 주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9월 아시아 개발 전망 (ADO) 보고서'에 따르면, 활발한 산업 생산 활동과 무역 증가로 인하여 베트남 경제가 2024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통계총국은 베트남 경제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4분기에도 여전한 대외 환경 리스크 및 자연 재해 영향 등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올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6.82% 기록했으며, 이는 베트남 정부의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범위(6.8~7%)의 하단에 속한다. 이에,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각 부서와 지역이 협력하여 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 촉진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베트남 커피 산업 정보

- 세계 2위 커피 생산국 베트남, 전세계 로부스타 원두의 약 40%를 생산
- 베트남 커피 브랜드 점유율 1위는 네스카페

산업수급 현황

베트남의 로부스타 커피 생산량은 2018~2019년 기간에는 2934만 자루(1자루는 60kg)였으나 2019~2020년에 3020만 자루로 증가했다가 2020~2021년에는 다시 2805만 자루로 하락하는 등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은 로부스타 커피 생산량의 약 3%에 달하며 로부스타 커피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2010년 55만 4800헥타르였던 베트남의 커피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약 71만58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재배 면적 증가는 2020~2021년 브라질의 작황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유럽 및 미국으로의 커피 수출이 줄면서 베트남 산 커피가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호전되며 더 많은 농가가 커피를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경향

베트남에는 길거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있다. 베트남의 커피 소비량은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년에는 베트남의 커피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봉쇄조치가 완화되며 다시 커피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커피 매출액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또한, 2023년 베트남의 커피 매출액은 55억648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8년에는 약 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망 분야

▶ 인스턴트 커피

베트남의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생활방식에 맞추어 카페를 갈 시간이 없더라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 시장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스턴트 커피 수요는 2024년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베트남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로부스타 원두를 사용한 인스턴트 커피는 꾸준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 커피 제조 및 가공설비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지만 국내에서 가공하기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커피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증가하며 제조 및 가공설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및 가공업체와 농민 모두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커피 제조 및 가공설비 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조사된다.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동향

- 2023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 수입점유율 5위 기록
- 전체 유통의 86.9%가 오프라인 소매

시장동향

베트남의 의료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나, 아직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는 일부 병원은 수용 가능 여력의 150%가 넘는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병원의 주 고객은 베트남 진출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 현지 부유층에 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낮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으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기보다는 약국과 전통적 형태의 구멍가게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의 소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에 포함되는 베트남의 비타민과 식이보조제 시장은 2019년 8억4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11억48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8년에는 17억13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통구조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은 주로 건강 및 뷰티 전문점과 같은 오프라인 소매 채널에서 판매되며 전체 유통의 86.9%를 차지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조식품의 온라인 유통 채널 점유율은 13.1%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은 현대적인 시설의 대형 마켓과 이커머스 소매 채널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뷰티 전문점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물품을 보고 직원의 자세한 설명과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한 성분 추천을 듣고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베트남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로 인해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건강보조식품류(HS code 2106.90)는 2023년 베트남 수입 점유율 5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수입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나 문화적 특성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제품 개발과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만, 베트남 건강보조식품류 시장은 이미 다양한 국내외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며, 정부의 기능성식품 관리에 대한 규제와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천연성분을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접근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성비와 즉각적인 효과! 보톡스·필러가 주도하는 베트남의 미용 트렌드

- 베트남인의 외모 관리 열풍, 보톡스·필러 수요 급증
- 제품 안정성 제고 및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중요

성장하는 베트남 성형 수술 시장

베트남의 성형 수술 시장은 괄목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의 기준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 소셜 미디어의 확산 등이 베트남 전역에서 성형 시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급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비교적 저렴한 성형 비용 △실력을 갖춘 성형외과 의사들이 증가한 덕분에 베트남 성형 수술 시장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 성형 수술이 주목받으면서 보톡스와 필러 같은 비침습적 시술의 이용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침습적 시술은 성형 수술과 달리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아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선호된다. 또한, 성형 수술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모 개선을 원하는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톡스와 필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2023년 10월 동남아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베트남 응답자의 47%가 보톡스 및 필러와 같은 미용 시술을 경험했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는 주요 연령층은 25세에서 55세 사이로 이들은 외모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관리의 일환으로 시술을 꾸준히 받는 경향이 있다. 한국산 보톡스와 필러는 현지에서 안전성, 효과, 그리고 품질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고급 고객층이나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성과 긴 지속력으로 호평을 받는 미국, 독일, 스위스산 보톡스 및 필러 제품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층에 따라 선호도가 상이하지만, 베트남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민감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상류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급 제품에 대한 선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제품에 기꺼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미의 기준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현재 비침습적 시술이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보톡스 및 필러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톡스 및 필러 바이어 M사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현지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파트너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T사는 “기업이 제공하는 보톡스 및 필러의 성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보톡스와 필러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베트남 보톡스 및 필러 시장에 진출 시 현지 동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제품 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임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피규어 수집 열풍, 아트토이 시장에 새로운 물결

- 감성적 가치로 베트남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트토이
-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고려, 창의적 제품개발과 적극적 마케팅 필요

베트남의 아트토이 시장 트렌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정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비재라는 부분이 피규어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세대들은 어린 시절 만화 등으로 좋아한 캐릭터를 피규어로 수집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피규어를 구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셜 미디어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피규어 판매와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잠재 고객과 소통하며 피규어 수집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컨벤션, 전시회, 오프라인 모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행사는 아티스트와 애호가들이 컬렉션을 거래하고 전시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트토이는?

베트남에서도 한정판 또는 희귀 피규어가 주목받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희소성을 지닌 피규어들의 경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오픈런이나 리셀 매장에서 제품을 구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베어브릭(BE@RBRICK)과 카우스(Kaws) 등의 브랜드는 베트남에서도 수요가 높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피규어 역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만화 캐릭터와 마블, 스타워즈 같은 서구 프랜차이즈 캐릭터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산리오 캐릭터나 팝마트의 퍼키(Pucky), 몰리(Molly)처럼 과장된 특징을 가진 파스텔 톤의 피규어가 베트남의 키덜트(Kidult)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베트남 현지 제작 피규어 제품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TIDU 워크숍, 올린도(Oleander) 워크숍, JOPUS 같은 현지 피규어 제작 업체들은 베트남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창의성을 결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은 글로벌 유명 캐릭터와 피규어 브랜드의 인지도와 인기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올린도 워크숍의 프로젝트 매니저 O 씨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피규어 시장은 소규모 아티스트와 공방이 점차 생기면서 현지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제 막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전했다.

시사점 및 전망

피규어 시장의 주요 고객층은 젊은 소비자들로 이들은 새로운 피규어 디자인을 추구하며 글로벌 유행에도 매우 민감한 편이다. 라부부 시리즈의 경우, 블랙핑크 리사가 라부부 인형과 함께 올린 사진으로 동남아에서 인기가 더욱 급등했으며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는 제품 구매를 위한 오픈런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 아트토이 시장은 외국산 캐릭터와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가 존재하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주 소비층의 높은 트렌드 민감성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품 개발 및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안과 질환 증가, 베트남 아이케어 산업 주목

- 소득 증가가 견인한 베트남 아이케어 수요 확대
- 진출 시 현지 제약사와 협력 모색 가능

눈 건강 트렌드가 이끄는 베트남의 아이케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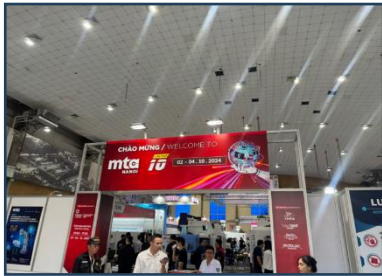
현재 공해 및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베트남인의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장시간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시력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안과병원(Central Eye Hospital)을 관할하는 보건부 부국장 응우옌 뚜언 흥(Nguyen Tuan Hung) 박사는 지난해 한 행사에서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 학생들의 굴절이상 유병률은 약 15~20%, 도시 지역에서는 30~4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안과병원의 한 의사는 2019년 병원을 찾은 환자 중 약 20%가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인구 고령화도 노화로 인한 안구 질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9년 11.9%에서 2023년 13.9%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매년 약 15만 명 이상의 백내장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70%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노년 층은 안질환에 취약하므로 눈 유행제와 안압 조절을 위한 안구 관리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일본 제약사가 주도하는 베트남 아이케어 시장

로토-맨소래담(Rohto Mentholatum)은 베트남 아이케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토-맨소래담은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1999년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다. 아울러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의 유명인 당 투 타오(Dang Thu Thao)와 헨 니(H'Hen Nie)를 모델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매년 무료 안과 검진과 백내장 수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로토-맨소래담 외에도 베트남 아이케어 시장에 10년 넘게 활동해 온 일본 브랜드로는 산텐(Santen)이 있다. 산텐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신제품을 업데이트하고, 일반적인 눈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케어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도 안약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유사한 브랜드를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DHG 제약의 아이라이트(Eyelight)와 메랍(MERAP)의 오슬라(Osla)가 있다.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은 브이로토 안약의 절반 가격으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인의 소득 상승으로 더 많은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베트남의 아이케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의약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광고 등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유통업체나 제약 체인과 협력해 넓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시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하노이 MTA 참관기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제조업 현지 동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제조업
- 현지 진출업체 및 바이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시장 전망과 유의사항

MTA Hanoi 2024 개요

하노이국제전시 센터에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하노이 기술·기계 전시회(MTA)가 개최됐다. 하노이 MTA는 특히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기계, 설비, 금속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들이 제품홍보,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이미지 강화, 기술 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는 전시회로 이번에는 총 13개국에서 9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다.

참가기업 인터뷰: 한국기업 B사

B사는 1999년 설립된 엔드밀 및 절삭공구 제조기업으로 매년 MTA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제조업 동향에 대해서는 산업 트렌드가 휴대폰에서 자동차와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이슈로 산업 수요가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동차 제조 분야는 여전히 유망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 내수시장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중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도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바이어 인터뷰: 한국기업 G사

G사는 한국의 플라즈마 표면처리 소재·부품 기업으로, 전시회 참관 목적으로 기술 동향 파악과 파트너사 선정을 꼽았다. 현재 베트남 제조 시장에 관한 질문에는 자동차 산업 부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트남 진출 시 각종 절차와 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절차가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하며, 철저한 시장조사와 신중한 공단 선택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점

2024년 3분기 기준, 베트남의 가공 제조업은 11.41%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3분기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와 FDI 투자 증가가 존재한다. 베트남은 글로벌 대기업의 탈 중국 움직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으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기보다 베트남을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특히 전기차 등 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수요 증가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그리고 법률 및 허가 비용 예측의 어려움 등은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 꼽힌다. MTA 전시회는 베트남 제조산업의 시장과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베트남 기업 외에도 현지에 투자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여러 세미나를 개최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라면 참가를 고려할 만한 전시회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웨어러블IT기기 시장동향

- 2024년 베트남 웨어러블 IT 기기 판매량 200만 대 돌파
- 2024년 베트남 웨어러블 IT 기기 브랜드 점유율 3위는 삼성

시장동향

베트남의 웨어러블 IT 기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문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운동 데이터를 기록하고 SNS를 통해 함께 공유하기를 즐긴다. 또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홈 장치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 일부처럼 일상의 편리함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관련 시장의 중요한 성장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하루 최소 11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 베트남 중산층은 2000년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지만 현재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중산층 소비자들은 손쉽게 운동량과 심박수와 같은 건강 관련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IT 시장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동향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의 웨어러블 IT 기기 시장은 주로 글로벌 회사 브랜드 제품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인기 웨어러블 IT 브랜드로는 샤오미, 애플, 삼성 등이 있다. 샤오미는 애플과 삼성과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애플과 삼성은 비전프로, 스마트링과 같은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아직 베트남에 입고되지 않았으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샤오미에 밀려 각각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거나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하며 샤오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삼성과 애플이 고가형 제품에 집중한 탓에 중저가 수요층을 놓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사점

소셜 미디어의 보편화와 소득수준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손쉽게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삼성의 스마트링과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IT 기기가 나오며 웨어러블 IT 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의 경우 베트남에는 아직 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웨어러블 IT 기기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다양한 웨어러블 IT 기기들이 도입되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이버보안법과 웨어러블 IT 기기에 대한 기본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오렌지값, 공급과잉에 폭락...kg당 약 20센트로 역대 최저치 기록

베트남 농가들이 오렌지 가격 폭락에 시달리고 있으며, 메콩델타 지역의 산지가는 kg당 1,000~4,000동(약 4~16센트)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농부들은 과거 kg당 1만 5,000~2만동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며, 생산비용을 밑도는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중도매인들은 수요 감소로 인해 대량 구매 대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오렌지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와 시장 구매력 약세가 지적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한 배송 차질도 영향을 미쳤음. 업계 전문가는 소비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가격 안정화 조치를 촉구하며 이와 함께 품질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side Vina 10.28]

▶ 새로운 국가주석 르엉 끄엥 선출

10월 21일 베트남 국회에서 만장일치(440/440)로 2021~2026년 임기의 국가주석으로 르엉 끄엥(Luong Cuong) 신임 국가주석이 선출됨. 40년 이상의 군생활을 한 장군 출신으로 올해 5월 공산당 사무국 상임위원으로 임명됨.베트남 국가주석은 국내 및 외교 분야에서 베트남을 대표, 부통령, 국무총리 등 요직 임명 및 해임을 국회에 제안할 권한을 가짐.

[Vnexpress 10.21]

▶ 베트남, 수입차 판매량 국산차 맞먹어...9월까지 11.2만대 28.5% ↑

올해 베트남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국산 조립차 판매는 7.5%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28.5% 증가함. 정부는 국산차 사용을 장려하고 등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점점 더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음. 수입차 비중은 2016년 22.1%에서 지난해 30.8%로 상승했으며,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다목적차량(MPV)과 SUV에 대한 선호가 높아, 동일 모델의 경우 수입차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남. 한국 브랜드의 구형 모델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으며, 소비자들은 품질과 내구성 면에서 수입차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베트남 자동차 매매 플랫폼 넥스트젠(Nextgen Vietnam)에 따르면, 수입차에 대한 검색량이 높아 일부 구형 모델은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Inside Vina 10.21]

▶ 베트남, 철도 인재양성 주력...남북고속철 '외국' 의존도 최소화

베트남은 남북고속철도 개발에 있어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임. 교통운송부는 국내 인력 교육계획을 유관기관에 지시하며 외국 전문지식 의존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인력은 약 19만 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 교육과정은 기술자, 엔지니어, 석사, 박사 등 4단계로 구성되며, 교육대상은 국가기관, 프로젝트 관리부서 등 5개 그룹임. 고속철도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1,541km를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약 1,700조 동(684억 달러)으로 예상됨.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는 이 투자정책을 승인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Inside Vina 10.15]

▶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2024년 총 경제성장률 목표 7% 유지 발표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2024년 총 경제성장률 목표 7% 유지 발표 했음.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10월 7일 오후에 열린 2024년 9월 정부 기자회견에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태풍의 영향에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7.4% 기록, 1~3분기 누계 기준 6.82% 성장했음.

[VnEconomy 10.8]

▶ 베트남-프랑스, 양국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

베트남 또 램(To Lam)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프랑스 공식 방문, 양국은 정상회 담 통해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 발표함. 항공우주,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공항교통인프라, 과학기술,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함.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 이자베트남의 8번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국가임

[VnEconomy 10.8]

▶ 베트남 통계총국, 9월 주요 경제지표 통계 발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 대비 2.63%, 전월 대비 0.29% 상승함. 9월 CPI 상승 주요인은 태풍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임. 11개 품목군 중 9개 품목의 물가는 소폭 상승, 2개 품목은 하락함. 9월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4% 상승했음. 1~9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투자·교역 모두 증가세로 9월 FDI 유치액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247.8억 달러이며, 1~9월 교역액 누계,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5,784.7억 달러임. 1~9월 무역수지 207.9억 달러 흑자, 수출·수입 각각 전년 대비 15.4%, 17.3% 증가했음.

[VnEconomy 10.6]

▶ 호치민시 지하철1호선, 연말 개통 앞두고 최종 시험운영 시작

호치민시의 지하철 1호선 벤탄-수오이피엔이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을 시작함. 시험운행은 1일부터 시작되어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운행 안정성과 비상 상황 대응을 점검할 계획임. 매일 2교대로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상업운행과 동일한 4분 30초로 설정했으며, 총 47개 항목에 걸쳐 화재,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평가할 예정임. 이 지하철 노선은 19.7km 구간에 14개역이 있으며, 총 43조 7,000억 동이 투입되었음. 전동차는 일본 히타치가 제작하였으며, 지상구간에서 최고 110km/h, 지하구간에서 80km/h로 주행할 수 있음.

[Inside Vina 10.4]

▶ 베트남, 육류 수입 급증...9월까지 12.4억달러 전년동기비 19% ↑

올해 1~9월 베트남의 육류 및 육류 부산물 수입액은 약 12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주로 인도, 미국, 러시아, 독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며, 이들 육류가 국내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수입산 돈육의 소매가는 kg당 5만 2,000~5만 5,000동으로 국내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동나이성 축산협회는 외국산 축산물의 대량 수입이 가축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검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입육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례도 있어, 축산물 검역 규정이 강화되었음. 동물위생국은 새로운 규정은 국제법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으며, 수입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함.

[Inside Vina 10.4]

▶ 베트남 커피 수출가, 로부스타가 아라비카 제쳐… 사상 처음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자 로부스타(Robusta) 원두 최대 생산국으로, 올해 로부스타의 수출가가 아라비카(Arabica)보다 높아짐. 2023년 8월까지 커피 수출량은 100만여 톤으로 감소했지만, 평균 수출가 상승 덕분에 수출액은 34.8% 증가함. 9월 전반기 로부스타 수출량은 1만 5,155톤으로, 아라비카보다 평균 수출가가 887달러 높았음. 로부스타는 기후변화로 인해 공급난이 발생하면서 아라비카보다 가격이 높아졌으며, 인스턴트 커피 수요 증가와도 연관이 있음.

[Inside Vina 9.27]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베트남에 15억달러 투자 추진

스페이스X, 베트남에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인 또 럼(To Lam)은 뉴욕에서 스페이스X의 팀 휴즈와의 회담을 통해 투자 협력 계획을 논의함. 휴즈는 베트남이 위성인터넷 서비스 개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스타링크가 자연재해 대응에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럼 서기장은 정부가 스페이스X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함. 스타링크는 202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여 개국에 3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임. 현재 베트남은 인터넷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1,500개에 이르는 상황임.

- [Inside Vina 9.26]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Nam Thanh Ninh Thuan Waste to Energy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업명 : Tin Thanh Group Joint Stock Company, Nam Thanh Ninh Thuan Environment Co., Ltd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Loi Hai Commune, Thuan Bac Dist., Ninh Thuan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paring for F/S report, looking for investor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purpose: The Nam Thanh Ninh Thuan Waste treatment plant has been operated for 20 years to turn waste into fertilizer. The project owner is now planning to change from landfill to waste to energy technology. ➢ Scale of Project: ➢ Capacity: 200 tons waste/day ➢ Power generation: 1.5 MW ➢ Total site area: 122 ha (Landfill: 70ha, waste treatment area: 52 ha) ➢ Do FS report: 2024 ➢ Bidding for Investor of project: Q2-Q3/2025 ➢ Construction and COD: Q4/2025-Dec. 2026 ➢ The power generated will be self-consumed by the plant.



aT, 아세안 최대시장 베트남 K-푸드 페어 성공적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7일부터 20일까지 K-푸드의 베트남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2024 호치민 K-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 시에서 열린 이번 페어는 17일과 18일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19일과 20일 주말 이틀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B2C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B2B 수출상담회에는 호치민, 하노이 등 베트남 바이어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등 총 150개 바이어사와 한국 수출업체 39개사가 참여해 이틀간 710건의 1:1 매칭 상담으로 75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이중 홍삼·흑삼 등 건강기능식품, 딸기·샤인머스켓·사과 등 신선 농산물, 김치류, 음료, 스낵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아 61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도 체결됐다. 특별히 상담회장 안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현지 전문기관과 협력해 현장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상표권, 지식재산권, 통관, 관세, 법률 등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업체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주말 이틀간 진행된 B2C 소비자 체험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사이공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진행됐으며,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가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현지인 입맛 공략에 나섰다. 현장에는 샤인머스켓, 배 등 신선 과일부터 인삼류, 쌀가공식품, 라면, 음료, 건강기능식품, 주류, 빙과류, 소스류 등 다양한 K-푸드를 맛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지 젊은이들의 주요 기념일인 ‘여성의 날’을 맞아 더 활기를 띠었다. 또한 브랜드 홍보관, 마켓테스트관 등을 찾은 시민들에게 방문 도장 인증과 바우처 쿠폰을 제공하며 참여도를 높여 K-푸드 현장 구매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했다. 또한 현지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라면 요리 경진대회, 김치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틀간 3만여 명의 방문객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aT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아세안 최대 수출시장인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함께 높아진 K-푸드의 위상과 수요를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바이어와 수출업체 알선과 소비자 마케팅을 적극 펼쳐 K-푸드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대베트남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4억 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음료류 47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12.5% ↑), 인삼류 2200만 달러(4.4% ↑), 라면 1500만 달러(12.6% ↑)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인 힐링메디컬코리아 베트남

홍희경 대표

힐링메디컬코리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베트남 법인명은 HMK-VN (Healing Medical Korea -vietnam)입니다. 25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디컬 전문 종합광고대행사의 (주) 광고하자 해외사업부로 시작하였으나 2015년 힐링메디컬코리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16년 베트남 법인인 HMK-VN을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며 상상과 변화, 도전과 소통 이라는 회사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체인지라이프” 프로그램 시즌1과 시즌2(단독제작)를 공영방송국인VTV2 통해 송출하여 많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며 크게 이슈가 되었고 HMK-vn의 브랜드가치도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통의학 공간병원으로 부터 의료교육 및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젝트 합작의 제안을 받아 지금 현재 베트남 전통의학 공간병원과 한 & 베 의료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힐링메디컬코리아의 베트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MK-VN 은 베트남내에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한국식 의료 케어(부인과, 소아과, 피부과,성형외과) 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산후조리원 런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원 운영방식과 베트남 문화와 정서를 조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격 산후조리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8년 전부터 베트남 전통의학 공간병원과 함께 베트남의 젊은 남녀 대상으로 의료 간병인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한국 대학 과 연계하여 유능한 인재들은 전문교육을 시켜 대한민국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와 유학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양국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력은 있지만, 참~~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보수적이고, 법으로 정해진 매뉴얼이 많이 부족해서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주 변경되는 법률지침에 혼돈도 있었지만 , 베트남도 자릴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자주 바뀌는 행정적인 부분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법률도 자주 바뀌고, 바뀐 법률적용이 언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행정기관의 담당자들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 담당자들에게 받는 피드백도 너무 늦고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많습니다. 바뀐 행정을 지켜야 하는 외국인으로서 자주 번

경되는 내용으로 인해 참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하고 푸쉬해야 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특성상 담당자들에게 변경된 법률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때 반문을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보수적인 파트너와 민감한 의료사업이라 어려움을 감안하고 시작했음에도 고충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에게 행정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이상 이방인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내 비즈니스 문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규율은 엄격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받아오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너무나 답답하고 보수적인 법규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사람들의 성향상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돈으로 빨리 해결을 보시려고 합니다. 물론 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파트너나 에이전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사람 사는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안되다는 것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사 돈으로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럼으로 인내를 가지시고 cross-check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의 유무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아쉬움도 많지만, 지난 세월 경험으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 해도 그다지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하리란 장담은 못 할 것 같네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자영업포함), 직접 알아보시고 꼭! 여러 번 double-check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쉽게 얻어지는 정보는 없습니다. 베트남에 높은 사람 소개받아서 진행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베트남에서의 유언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베트남에서의 유언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에 자산을 가진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베트남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인 상속인에 대해 유언으로 사후 상속 자산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관계에 해당하는 유언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민법 제663조 2항은 참여당사자중 최소 1인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민법 제681조 1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의 경우 유언을 작성, 변경,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은 유언자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에 대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 베트남 민법 제681조 2항은 유언을 행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민법상 유언 관련 규정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민법 제629조, 제631조,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법상 유언의 방법

➤ 구두 유언

베트남 민법상 구두 유언은 제629조 및 제630조 5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워 서면 유언이 불가능 한 경우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구두 유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후까지 유언자가 생존하고 정신이 온전할 경우 구두 유언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구두 유언자는 최소 2인의 증인 앞에서 최종 유언을 하고, 구두 유언자가 최종 유언을 한 직후 증인이 이를 녹음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합니다. 구두 유언자가 최종 유언을 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공증인 등으로부터 증인의 서면, 지문을 통해 유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증인이 있는 서면 유언

민법 제6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인이 있는 서면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증인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며
- ✓ 유언 작성자는 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합니다.
- ✓ 증인은 유언자의 서명과 지문을 확인한 후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 ✓ 증인은 유언 또는 유언자의 법률에 따른 상속인, 유언의 내용과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 미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등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증인이 없는 서면 유언

민법 제6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공증 유언

유언자는 유언장의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6조에 따른 공증 유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공증할 공증인 또는 인민위원회에 선언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진술한 의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이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유언자의 의사가 충실히 표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증인은 해당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읽거나 들을 수 없거나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 앞에 해당 유언장에 서명하여 이를 인정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인증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 또는 공증인은 유언자와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장을 공증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법률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은 유효하며, 더불어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하는 동안 사기, 협박, 강요를 받지 않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유언을 작성 하였어야 하며, 유언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유언의 형식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언은 유효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재산이 있는 한국인 또한 베트남의 법률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내국인투자자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몇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신고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즉, 한국인투자자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투자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모두 투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발급 면제 등을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8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부가세와 관련하여 부가세 공제 및 환급절차 그리고 세무조사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및 환급 등

부가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번호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부가세의 공제 및 환급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제보다는 환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가세의 납부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이며, 반대로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공제’라고 지칭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의 잔액은 다음번 부가세 신고시 전기에서 이월되어 온 미공제매입세액이 해당기에 발생한 매입세액과 합쳐져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전기에서 환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의 잔액을 환급 받는다면, 다음번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줄어들테지요. 즉, 전기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미동제매입세액이 ‘0’일테니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특정기간을 놓고 가정했을 때, 공제던 환급이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공제보다 환급을 더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환급 받은 부가세환급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도 있으며 또는 직원들 급여지급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등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 대기업 계열에서 과거부터 오랜 기간 사업의 영역으로 활용하는 ‘XX 캐쉬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열사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캐쉬백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제도이지요. 여기서 만약, 일정 포인트가 쌓여 있는데,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A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A인터넷 쇼핑몰에는 하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나는 일정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타 쇼핑몰로 이동해서 현금을 결제하고 물건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A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고 물건을 사는 게 나을까요?

따라서, 부가세의 공제 및 환급은 서로 완전히 별도의 개념은 아니고 연관성이 깊은 개념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구요. 이왕 그러한 개념이라면 아무래도 나에게 선택지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환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등 각종 제세금 등의 환급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환급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그 환급조건들을 상당수준 까다롭게 규정화해두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일반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안타깝지만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쉽게 안내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내어 주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규정상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자본금의 완납’입니다. 정관자본금의 납입은 법인을 처음 설립한 경우나 증자를 한 경우에 통상 집중하는 부분인데요. 자본금 납입과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당연한 조건들이 최근 일부 지역 세무서의 재량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법인이 경우 외국에서 베트남 자회사의 직접투자계좌로 납입된 자금은 당연히 외국환일 것이나, 이 외국환을 VND로 환산 시 투자등록증 내지 사업자등록증상 VND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겠다는 행정 처분이 종종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최초에 설립 시 정관자본금을 USD 1,000으로 정했고 현재 동/달러 환율이 VND 25,000 / USD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를 근거로 법인 설립이 끝나고 나면 수령하게 되는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USD 1,000 및 이를 환산한 VND 25,000,000이 함께 병기되어 기재가 됩니다. 신설법인 입장에서는 기업법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으니 당연히 모법인에서는 기일안에 USD 1,000을 직접투자계좌로 송금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완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 송금 받은 날 당시의 동/달러 환율이 변동되어 USD 24,999/ USD 1이라면 송금 받은 자본금을 VND 24,999,000로 보고 자본금이 미납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USD 1,000 기준으로는 자본금 납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나 변동된 환율로 인하여 VND 기준으로는 자본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석하는 옳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를 빌미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부가세 관련 사항 중 부가세 공제 및 환급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이번호에 이어서 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EPE 관련 문의 공문 요약

FTA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베트남 관세총국은 7월 22일 한국중소기업연합회(코참)으로부터 EPE 기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9월 4일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해당 공문 내용 정리를 통해 EPE기업 운영 관련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EPE기업이 현지 기업에 기계, 장비를 대여하거나 부품을 반입하여 수리 등을 하는 경우

- -2023년 관세청 공문 300/TCHQ-CCHDH 에 따라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EPE 기업은 임시수출절차를 거치고, 국내기업은 임시수입 절차를 수행한 뒤, 대여가 종료되고 국내기업이 재수출 절차를 거쳐 EPE 기업으로 공급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 다만 임대 후 사용과정에서 기계, 장비가 수리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최초로 수출된 물품과 달라진 경우라면,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수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계 수리 후 재수입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비과세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하고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 베트남 관세총국은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시행규칙 38/2015/ TT-BTC 제 79조에 따라 폐기하고, 수입되는 물품은 동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EPE기업이 폐기 후 잔여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 장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 기술하여 관세청 및 세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3. EPE 기업이 간접재료 및 소비재를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 이 사례의 경우 공급되는 물품의 종류와 세관별 통관절차와 지침이 각자 상이하기 때문에 관세총국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곤란함을 회신하였음.
- 다만 원론적으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 16조 제6항에 따라 EPE가 간접재료 및 소비재를 국내기업에 공급하였어도 가공제품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지 않거나 가공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며, 정상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을 회신
- 상기 회신 공문의 관세총국 의견을 요약하자면 EPE기업의 면세 대상 수입물품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내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총국은 1. 의견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면세 물품의 “동일성”을 중시하며, 베트남 국내기업 대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개조를 동일성 훼손으로 보아 동일 물품의 재수출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의견에서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폐기하더라도, 잔여 부산물은 별도로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 후 폐기물의 처리도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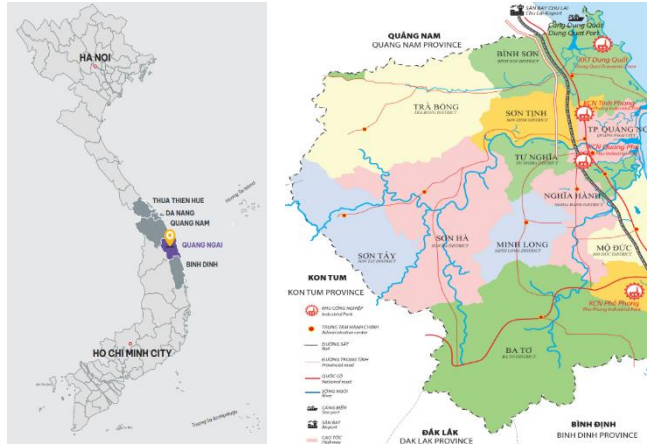
이에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수출물품 생산 외 과정에 소모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과 세관, 관세총국 지침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물품은 사후관리 미비 시 추징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꽝응아이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5,155.25km² 인구: 1,248,1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거주 비율: 21.86%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꽝응아이성은 베트남 남중부 해안 지역 북쪽에 위치한 해안 성이며, 베트남 중부의 주요 경제 지역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꽝응아이성은 동해와 태평양을 관통하는 국제 해상 항로와 연결되는 동서회랑 항로의 바다로 향하는 관문임 북쪽으로는 꽝남성(Quang Nam)성, 서쪽으로는 지아라이(Gia Lai)성과 궂똌(Kon Tum)성, 남쪽으로는 빈딘(Binh Dinh)성, 동쪽으로는 동해와 인접해 있음 꽝응아이 시는 호치민시에서 북쪽으로 838km, 다낭시에서 남쪽으로 146km, 하노이 수도에서 남쪽으로 883km 떨어져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1A 국도, 24A국도, 다낭(Da Nang) - 꽝응아이 고속도로, 중꾸엇(Dung Quat) - 사후잉(Sa Huynh) 해안 도로 철도: 남북 철도 항만: 중꾸엇항만 시스템 항공: 꽝남(Quang Nam)성의 추라이(Chu Lai)공항, 다낭(Da Nang)시 다낭 공항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2.24% / 성 1인당 GDP: US 4,241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25.06억달러 / 총 수입액: US 39.29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7.74%), 서비스업(5.73%), 농수산업(16.08%) 	
산업구조('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45.71%, 서비스업 24.48%, 농수산업 16.08% 	
노동여건('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연령 인구 비율: 54%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2.95%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5.15% 	
최저임금('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선(Binh Son) 현, 선띤(Son Tinh) 현: VND3,860,000 = US154 달러(3급지) 타 지역: VND3,450,000 = US138 달러(4급지) *계약상 최저 임금에 관한 제 74/2024/ND-CP 의결서(2024년 7월 1일) 따름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꾸엇(Dung Quat) 경제구역과 성의 모든 산업단지에서의 총 외국인투자는 65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22.5억 달러 (한국) 중꾸엇(Dung Quat) 경제구역과 성의 모든 산업단지에서의 총 한국투자는 1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4.5억 달러, 한국은 성에 투자한 13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2위, 투자 건수 기준으로 1위 규모임 	

투자환경



꽝응아이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총 150km 이상으로 간선도로와 해안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으로 다음을 포함함:
 - 1A 국도
 - 서부 고원지대, 라오스 남부, 미얀마, 태국 북부와 연결되는 24A국도
 - 다낭(Da Nang) - 꽝응아이 고속도로,
 - 중꾸엇(Dung Quat) - 사후잉(Sa Huynh) 해안 도로
- 꽝응아이성은 추라이(Chu Lai) 개방경제구역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라이 공항과 인접하고 다낭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음. 꽝응아이성에서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지까지의 해상 거리는 매우 가깝고 국제 해상 항로에서 190km, 국내 해상 항로에서 30km를 떨어져 있음.

(철도)

- 크고 작은 8개의 역이 관통하는 남북 철도가 있으며, 그 중 꽝응아이역이 주요 역임

(항만)

- 중꾸엇 항만 시스템: 깊이 최대 19~21m, 면적 1,158헥타르, 해안선 10km 이상, 2022년 항만 처리 능력은 연간 약 4,300만 톤이며 연간 9천만 톤 이상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 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 일반 항만 시스템: 50,000DWT~70,000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12~15개의 선착장을 포함함
 - 대규모 중공업과 연계된 특화 항만 시스템: 최대 200,000~250,000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항공)

- 다낭 국제공항은 꽝응아이 시에서 130km, 중꾸엇 경제구역에서 110km 떨어져 있음
- 추라이 공항은 꽝응아이 시에서 35km 떨어진 중꾸엇 경제구역 옆에 위치해 있음

▶ 관광

- 꽝응아이는 관광 잠재력, 풍부한 문화·역사적 경관, 자연에 둘러싸인 리조트를 갖추고 있어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임. 꽝응아이성은 자연이 선물한 130km가 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미케(My Khe) 해변, 사후잉(Sa Huynh) 해변, 빈자우(Binh Chau) 해변 등 아름다운 해변과 하늘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흰 모래사장을 자랑함. 다양한 지형과 열대 몬순 기후가 결합된 꽝응아이성은 매우 풍부한 생태계와 가담(Ca Dam) 산, 하얀 폭포(White waterfall)와 같은 유명한 풍경을 보유하고 있음. 이선(Ly Son)섬은 웅장한 석회암 절벽과 장엄한 자연 경관을 형성했던 25~30백만년 전 5개의 화산 분화구 유적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양파, 마늘, 바다 특산품으로도 유명함.



쑤이지(Suoi Chi) 생태 관광 지역



띤케(Tinh Khe) 코코넛 숲 관광 지역



하얀폭포



이선(Ly Son) 섬

경제개발 방향

(2030년 비전)

- 석유화학 정제와 철강의 두 가지 핵심 산업 중심 지방성을 지향함
-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에 녹색산업과 첨단산업을 형성함
- 관광 부문에 중점으로 점차적으로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를 구축함
- 첨단 기술, 유기농 농업, 순환 농업을 적용한 농업 모델을 추구함

(2050년 비전)

-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며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산업들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팡응아이성을 개발함
- 현대적인 인프라 시스템, 스마트 도시 시스템을 완성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연구 센터를 개발함
-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 및 증진하고, 교육 및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보장을 강화함

▶ 인센티브 지원 정책

(법인 소득세)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법적 근거)

-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팡응아이성 대상 성의 경제구역과 산업단지에서의 총 외국인 투자는 65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22.5억 달러 투자 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No.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 (\$)
1	두산중공업 프로젝트 (Doosan Enerbility Vietnam Co., Ltd.)	한국	315백만
2	VSIP II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및 거래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단계 1) (VSIP Quang Ngai Company Limited)	싱가포르	161백만
3	VSIP Quang Ngai 산업, 도시 및 서비스 단지 (VSIP Quang Ngai Company Limited)	싱가포르	139.85백만
4	Hoya Lens – Dung Quat 2호 렌즈 제조공장 (Hoya Lens Vietnam Co., Ltd. - Vietnam Branch)	일본	138백만
5	Messer - Quang Ngai 산업용 가스 공장 (Messer SE & Co. KGaA company)	독일	133.3백만

No.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 (\$)
6	산업용 가스 분리 및 액화 공장 (Messer Hai Phong Industrial Gases Co., Ltd.)	독일	130.2백만
7	Bekaert Vietnam-Dung Quat 강섬유 및 편조강섬유 공장 (Bekaert Vietnam Co., Ltd.)	벨기에	125백만
8	Millennium Dung Quat 실내외 가구 제조 및 가공 공장 (Millennium Furniture Company Limited)	영국	80백만
9	Xindadong Textiles - Dung Quat 직물 공장 (Xindadong Textiles Co., Ltd)	싱가포르	65백만
10	전자부품 생산 공장 (Sumida Quang Ngai Electronics Co., Ltd)	일본	58.5백만

▶ 한국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성의 경제구역과 산업단지내의 총 한국투자는 1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4.5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성에 투자한 13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2위(싱가포르 1위), 투자 건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 팡응아이성의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내 TOP 한국 투자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회사명	투자금 (\$)
1	두산중공업 프로젝트	Doosan Enerbility Vietnam Co., Ltd.	315백만
2	Binh Hoa-Binh Phuoc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및 거래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Daeyoung Industrial Park Quang Ngai Co., Ltd.	56.38백만
3	Sedo - Dung Quat 직물 공장	Sedo Camping Co., Ltd.	44.8백만
4	Dong Ah Vina - Dung Quat 고무타이어 공장	Dong Ah Vina Co., Ltd.	30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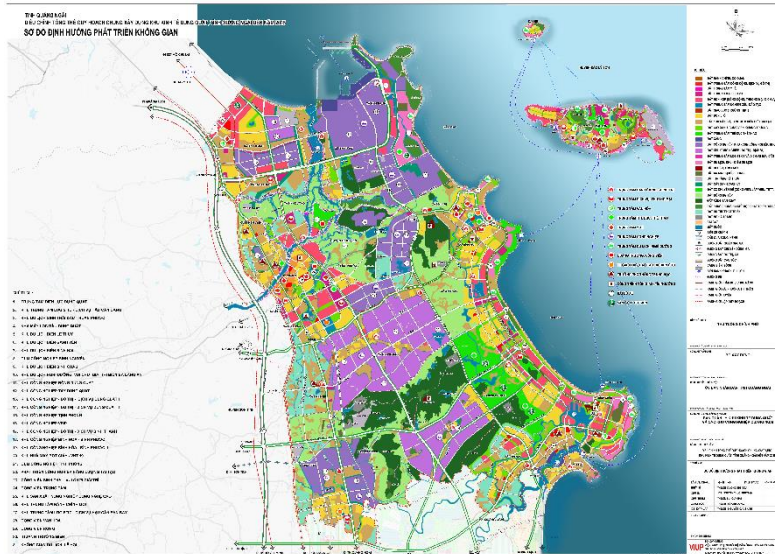
공단현황

▶ 경제구역

- 중꾸엇(Dung Quat) 경제구역은 일반, 다분야 경제 구역이며, 경제구역에는 국가 석유화학-에너지 정제 센터, 기계-금속 센터 및 지역의 대규모 물류 센터가 있음. 중꾸엇(Dung Quat) 경제구역은 베트남 정부의 가장 높은 현행 우대 토지 및 세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 면적: 45,332헥타르
 - 위치: 팡응아이 시에서 35km, 추라이(Chu Lai) 공항에서 13km

▶ 주요 공단 정보

공단명	면적(ha)	주요정보	투자자/개발사
VSIP Quang Ngai 산업, 도시 및 서비스 단지	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76% 프로젝트 수: 41 투자유치분야: 섬유, 가죽 신발, 소비재, 내외장 가구, 자동차 제조 지원 산업, 의료 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VSIP Quang Ngai Co., Ltd 웹사이트: https://www.vsip.com.vn
VSIP II Quang Ngai 산업단지	4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 아직 운영되지 않음 투자유치분야: 패션, 의류, 신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내외장,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및 조립; 식품 및 음료; 기타 친환경 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mkt.dept.qn@vsip.com.vn
꽝푸(Quang Phu) 산업단지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프로젝트 수: 49 투자유치분야: 해산물 가공, 종이 임산물 가공; 맥주, 와인, 음료, 제과, 포장;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ng Ngai Investment Construction And Services Trading One - Member Co.,Ltd 웹사이트: https://qisc.com.vn
띤퐁(Tinh Phong) 산업단지	1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98% 프로젝트 수: 57 투자유치분야: 건축 자재, 기계, 수출 목재 가구, 전자, 신발, 섬유, 합성 재료, 지원 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사이트: https://qisc.com.vn
사이공 - 중꾸엣 산업단지	1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99% 프로젝트 수: 31 투자유치분야: 의류, 목재 가공, 기계, 목재칩, 창고, 변성전분 생산, 윤활유 생산, 동물 사료 가공, 산업용 가스 생산 등 	
중꾸엣 산업-도시 단지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 아직 운영되지 않음 투자유치분야: 전기, 전자 및 통신 장비의 제조 및 조립; 의약품, 의약화학물질, 의약재료 생산; 식품 및 음료 생산 및 가공;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생산, 조립; 섬유, 가죽 신발; 제조·가공업; 경공업 및 지원 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ang Thinh Dat Corporation 웹사이트: https://htdcorp.vn
빈호아-빈프억(Binh Hoa-Binh Phuoc) 산업단지	2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 아직 운영되지 않음 투자유치분야: 보석, 장식품 제조; 수공예품; 석유화학 공업, 페인트, 일반화학물질;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건축자재, 도자기, 유리, 가구, 가전제품; 섬유, 의류, 신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및 조립; 기타 경공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eyoung Industrial Park Quang Ngai Co., Ltd TEL:84-938 280 900



중꾸엣 경제구역 공간개발 방향도

○ 주요 산업 클러스터 정보

- 팡응아이성에는 총 면적이 400헥타르가 넘는 24개 산업 클러스터가 있으며, 15개가 가동 중임.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산업 클러스터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농촌 농업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팡응아이성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임.

투자 유망분야

팡응아이성은 다음과 같이 성의 강점이 있는 분야와 개발 여지가 많은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산업 부문)

- 첨단산업, 청정산업
- 가공 및 제조 산업
- 폐수처리,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산업
- 지원산업
- 반도체 산업

(관광 및 서비스 부문)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 물류 서비스
- 슈퍼마켓, 쇼핑 센터, 편의점 프로젝트
- 상업 및 전자분야
- 휴식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 관광단지

(농업 부문)

- 첨단기술과 생명공학을 적용한 유기농업 프로젝트
- 수산물 보존·가공 시설 프로젝트

(기타 분야)

- 경제구역,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등의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사업
- 고품질 교통 및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 스마트 도시 개발, 디지털 기술, 과학 기술에 관한 프로젝트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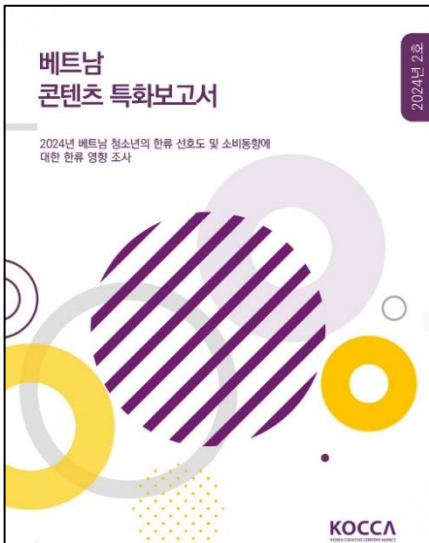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	연락처/이메일
꽝응아이성 투자진흥센터	Mr. Le Van Tai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55-381-9129• Email: ttxttdt@quangngai.gov.vn• Website: ipc.quangngai.gov.vn
중꾸엇 경제구역 및 꽝응아이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Mr. Nguyen Van Phu 투자관리실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55-364-5684• Email: dungquat@quangngai.gov.vn• Website: dungquat.quangngai.gov.vn



2024 베트남 김부각 보고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시장규모
2. 시장트렌드
3. 유통채널
4. 진입장벽
5. 수입유통업체 인터뷰



2024 베트남 청소년의 한류 선호도 및 소비동향에 대한 한류 영향 조사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조사개요
2. 한류 상품에 대한 선호도 및 소비실태
3. 결론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9. 20 기준 누계		2024. 1. 1 ~ 9.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10,054	88,292.91	302	1,494.57	2,892.71
싱가포르	3,806	81,126.71	339	4,770.64	7,350.19
일본	5,431	76,865.67	190	1,261.65	2,584.84
대만	3,234	40,564.34	145	728.36	1,434.60
홍콩	2,706	36,980.53	263	1,553.26	2,586.15
중국	4,922	29,556.46	729	1,858.94	3,225.72
버진아일랜드(영)	920	23,735.28	10	106.48	446.62
네덜란드	448	14,563.79	17	58.02	161.04
태국	756	14,166.66	25	59.25	130.91
말레이시아	748	12,873.79	29	78.89	116.96
미국	1,400	11,978.91	80	109.56	180.09
기타	6,889	61,008.84	363	1,474.14	3,673.57
전체 합계	41,314	491,713.89	2,492	13,553.76	24,783.4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9. 20 기준 누계		2024. 1. 1 ~ 9.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615	298,713.51	844	9,020.17	15,637.86
2	부동산 경영	1,189	71,521.51	55	2,400.28	4,380.0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6	41,674.21	3	1,015.79	1,119.99
4	호텔, 외식서비스	1,007	15,427.24	30	20.22	94.86
5	건설	7,824	11,672.18	872	513.01	920.04
6	도소매, 유지보수	1,842	10,990.54	40	23.22	586.69
7	물류운수	1,168	6,528.46	79	293.69	558.57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733	5,587.71	287	94.48	847.08
9	정보통신	3,076	5,164.09	176	29.25	131.99
10	채광	106	4,889.24	1	0.59	2.81
11	교육, 양성	703	4,634.69	29	26.62	38.12
12	농, 임, 수산	537	3,879.76	9	62.16	90.61
13	예술 오락	148	3,231.28	5	6.44	11.97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059.18	1	0.02	-104.5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9	1,766.90	2	2.2	94.97
16	행정, 지원 서비스	663	1,106.63	50	38.66	93.4
17	금융, 은행, 보험	100	932.51	5	4.05	112.49
18	기타 서비스	154	933.19	4	2.9	166.48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41,314	491,713.89	2,492	13,553.76	24,783.4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9
수출	3,363.10	3,713.00	3,546	2,996.5(+15.3)
수입	3,322.30	3,589.00	3,263	2,788.4(+17.5)
무역수지	40.80	124.00	280.00	208.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	57,994	52,379	41,894(+7.2)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	55,536	57,336	52,756(+27.4)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	45,751	43,128	37,792(+22.1)
섬유/직물제품	32,753	37,566	33,329	27,344(+8.9)
신발류	17,751	23,895	20,237	16,537(+12.5)
원목 및 목제품	14,809	16,011	13,467	11,682(+21.5)
철강제품	11,795	7,993	3,973	3,281(+9.0)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	11,988	14,157	11,052(+3.8)
수산물	8,886	10,923	8,971	7,228(+9.5)
원사(Yarn)	5,612	4,713	4,355	3,255(+0.1)
기타	87,379	98,934	103,339	86,829
합계	336,310	371,304	354,671	299,6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9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	81,884	87,965	79,115(+25.8)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	45,192	41,579	35,418(+16.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	21,126	8,749	7,377(+21.9)
의류(원단)	14,324	14,706	13,016	10,949(+14.3)
플라스틱 원료	11,685	12,387	9,755	8,472(+18.1)
각종 철강	11,523	11,920	10,425	8,972(+18.9)
기타 비금속	8,611	9,253	7,626	6,993(+25.1)
플라스틱 제품	7,959	8,119	7,508	6,431(+16.5)
화학제품	7,627	9,144	7,605	5,672(+1.4)
화학물질	7,735	8,747	7,726	6,278(+10.6)
기타	119,600	136,423	124,419	103,165
합계	332,234	358,901	326,373	278,84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9
1	미국	77,077	96,293	109,388	97,020	78,226
2	중국	48,905	56,009	57,702	61,207	38,282
3	한국	19,107	21,945	24,293	23,498	16,848
4	일본	19,284	20,128	24,232	23,314	16,016
5	홍콩	10,437	11,996	10,936	9,631	8,105
6	네덜란드	6,999	7,686	10,430	10,241	8,444
7	독일	6,644	7,286	8,968	7,400	5,258
8	인도	5,235	6,259	7,961	8,498	6,255
9	태국	4,917	6,161	7,476	7,192	5,235
10	영국	4,955	5,765	6,065	6,345	5,055
	기타	79,094	96,782	103,853	100,325	77,716
	합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	265,4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9
1	중국	84,187	109,874	117,866	110,644	104,807
2	한국	46,895	56,155	62,088	52,511	41,446
3	대만	16,701	20,772	22,631	18,421	16,618
4	일본	20,341	22,648	23,373	21,638	15,988
5	미국	13,713	15,270	14,470	13,822	10,962
6	태국	10,968	12,564	14,092	11,797	8,897
7	오스트레일리아	4,677	7,946	10,144	8,533	5,812
8	말레이시아	6,575	8,148	9,124	7,809	6,821
9	인도네시아	5,382	7,587	9,641	8,728	7,392
10	인도	4,435	6,950	7,086	5,864	4,269
	기타	48,826	64,320	68,386	66,606	55,830
	합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	278,84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
수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43,027(+10.0)
수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21,112(+7.9)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21,915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9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12,863(+44.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8,435(-2.8)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2,156(-24.1)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1,898(+18.3)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1,776(+20.0)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1,356(-3.3)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800(+4.9)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645(-1.1)
기타기계류	669(-14.5)	957(43.0)	793(-17.1)	801(+1.0)	516(-20.1)
계측제어분석기	686(-18.6)	717(4.5)	815(13.6)	734(-9.9)	430(-28.3)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12,152
합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43,027(+10.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9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3,591(+2.6)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2,720(-2.8)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1,792(+10.4)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2,062(+50.1)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1,245(+21.6)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938(-2.2)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502(-10.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429(-19.7)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463(+12.0)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309(+0.8)
기타	6,474	8,161	9,103	8,718	7,061
합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21,112(+7.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3~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5.05	5.05	1.1	3.8	1.9	5.6	
	2024년 1Q	%	5.66	5.11	3	4.2	1.7	5.7	
	2024년 2Q	%	6.93	5.05	2.9	5.8	1.5	6.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1.5	N/A	125.9	127.3	97.5	N/A
		2024년 7월	-	11.2	N/A	124.3	132.2	96.2	2.2
		2024년 8월	-	9.5	N/A	130.4	134.5	96.6	2.3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7월	-	54.7	49.3	50.7	49.7	52.8	51.2
		2024년 8월	-	52.4	48.9	50.9	49.7	52	51.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56.7	N/A
		2024년 7월	-	N/A	123.4	116	N/A	57.7	N/A
		2024년 8월	-	N/A	124.4	114.3	N/A	56.5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4.78	4.5
		2024년 7월	-	9.4	4.5	N/A	N/A	21.7	1.9
		2024년 8월	-	7.9	5.8	N/A	N/A	N/A	1.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25	N/A	4.8	N/A	N/A	7.9
		2024년 7월	%	4.36	2.13	2.4	2	N/A	4.4
		2024년 8월	%	3.45	2.12	2.2	1.9	N/A	3.3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10.9	N/A	N/A
		2024년 7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8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28	N/A	1.9*	3.4	0.98	3.1
		2024년 1Q	%	2.24	N/A	2	3.3	0.81	4
		2024년 2Q	%	2.29	N/A	1.9	3.3	1.01	3.7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0.8	△3.4
		2024년 7월	%	19.1	6.5	13.4	4.1	15.2	0.1
		2024년 8월	%	14.5	7.1	4.4	12.1	7	0.3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2	4.1
		2024년 7월	%	24.7	11.1	14	11.6	13.1	7.2
		2024년 8월	%	12.4	9.5	1.8	26.2	8.9	2.7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한국-대만 투자진출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과 대만 우수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사업을 개최하오니 실시하오니 우리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안내

- 행사명 2024 한국-대만 투자진출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00~13:30
- 장 소 하노이 롯데 호텔(바딘), 6층 샤롯데룸
- 주최/협업 KOTRA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CTCVN(대만기업협회)
- 대 상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한국 투자진출기업 중 대만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
전기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등), 제조(기계, 부품, 소재, 장비 등), IT, 기타
- 규 모 한국-대만 투자진출기업 20개사 내외
- 언 어 영어
- 참가신청 1개사 1인 참석으로 제한
*신청서 접수 이후 양국간 기업 수요에 따른 매칭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참가 기업 명단 확정. 신청서 접수 후 세부절차 개별 안내 예정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변동가능)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10:30('30)	등록	
10:30-10:35('5)	인사말씀	
10:35-11:55('80)	참가기업별 베트남 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협력희망분야 소개	참여기업별 3분 이내
11:55-12:00('5)	맺음말	
12:00-13:30('90)	네트워킹 오찬	

※ 문의처: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soorin@kotra.or.kr / 84 24 3946 0511(EXT.531)

[참가신청바로가기](#)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